

보도자료

- 블래터와 FIFA 윤리위에 법적 책임 묻겠다 -

FIFA 윤리위의 저에 대한 제재는 블래터 회장이나 플라티니 유럽축구연맹(UEFA) 회장, 발케 FIFA 사무총장에 대한 제재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으로, 그동안 FIFA에 비판적 입장을 취해온 것에 대한 적절한 보복이다. 이번 조사가 기본적인 실체도 없이 오로지 저의 선거 등록을 훼방하기 위해 시작된 술수임이 드러난 것이다.

블래터 회장과 플라티니 회장, 발케 사무총장은 뇌물, 배임, 횡령 등 구체적 범죄적 행위에 관련된 혐의를 받는 사람들임에도 90일 잠정 제재를 가한데 반해, 저에 대해서는 조사 비협조와 윤리적 태도와 같은 애매한 조항을 적용해 6년 제재를 가한 것은 현저히 형평성을 잃은 것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특히 윤리위가 조사 과정 내내 문제로 삼았던 투표담합(vote trading), 부정이익제공과 언론에 꾸준히 흘렸던 구호성금은 제외하고 단지 조사를 담당하는 윤리위 자신들에 대한 비판과 조사 비협조라는 지엽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을 제재의 근거로 삼은 것은 작금의 사태가 일관된 정치적 술수임을 보여준다.

FIFA는 2014년 11월 공개된 가르시아 리포트를 통해 한국 유치위의 활동들은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을 발표했다.

그러나 2018월드컵 유치 투표에서 2표 밖에 얻지 못한 영국의 의회가 자국의 유치과정에 대해 조사를 하고, 영국의 톰슨 집행위원이 저와 ‘투표담합’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FIFA 윤리위는 마치 결정적인 증거라도 잡은 것인 양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FIFA 윤리위는 톰슨 집행위원이 가르시아 조사국장에게 진술한 내용의 문서를 보내면서 저에게 “놀랐느냐(surprise)?"라는 질문 등의 조사를 했다.

하지만 톰슨 집행위원은 개최지 결정 투표 하루 전날인 2010년 12월 1일, 윌리엄 왕자의 요청으로 왕자의 방에서 이루어진 모임에 윌리엄 왕자가 참석했는지 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등 일관성 없는 진술을 했다. 이 자리에는 캐머런 영국 총리와 이홍구 전 총리도 참석했었다. 이런 자리에서 ‘투표담합’을 시도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저의 반박에 FIFA 윤리위는 이 부분을 취하했다.

FIFA 윤리위가 중점을 둔 또 하나의 혐의는 국제축구기금(GFF)을 설명하는 편지 문제였다. 초기 조사 과정에서 윤리위는 블래터 회장과 발케 사무총장이 저의 편지 사본을 보고 “놀랐다(surprise)"고 진술한 내용의 문서를 저에게 보낸 뒤 이 편지들과 관련해 수많은 질문을 던지면서 강도 높은 조사를 했다. 그러나 2010년 11월 발케 사무총장이 저와 한승주 유치위원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당신들의 설명을 듣고 이 사안을 종결했으며 윤리위에 보내지 않겠다"고 밝힌 서신의 존재를 윤리위에 통지하면서 상황은 반전되었다.

윤리위의 조사가 진행되던 지난 8월 언론에는 2010년 제가 아이티와 파키스탄에 기부했던 재난 구호 성금이 조사대상이라는 보도가 흘러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위의 두 나라 이외에도 여러 재난피해 국가들에 제가 꾸준히 구호성금을 보냈다고 반박하자 구호성금 관련 문제는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었다.

이번 윤리위의 결정에는 커다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에커트 심판국장(Chairman of Adjudicatory Chamber)은 본인의 말대로 명예훼손의 피해자라면 자신을 이 사건에서 제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을 맡아 심판을 한 것으로 이것은 심각한 적법절차 위반이다.

이번 결정으로 차기 FIFA 회장선거의 유효성과 공정성이 크게 훼손된 것을 우려한다.

블래터 회장의 경우에는 90일 잠정 제재가 지난 뒤 내년 2월 26일 열리는 임시총회에서 과반수 득표를 하는 후보가 없을 경우 다시 회장직으로 돌아오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국제 사회의 지적에 주목한다.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와 같은 FIFA에서 자신들의 안위만을 도모하면서 FIFA를 계속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세력들이 있다면 이들은 블래터 회장과 함께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저는 FIFA 윤리위의 악의적 제재를 바로잡기 위해 내 주 초 스포츠중재재판소(CAS)를 포함한 모든 법적인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또 영국 런던에서 최근 밝힌 것과 같이 블래터 회장의 비자-마스터카드 사기 사건, FIFA 집행위의 승인 없이 받은 본인의 연봉 등에 관한 배임 횡령 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부당한 제재로 저의 명예를 훼손한 FIFA 윤리위에 대해서도 상응한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다.

2015. 10. 9.

정몽준 FIFA회장 후보